

TV 19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Table with 4 columns: KBS1, KBS2, MBC, KBC/SBS. Lists programs and their airing times for the week.

이혼남녀 7년 후 운명같은 재회

SBS '파라다이스 목장' 24일 첫 방영

19살 제주도 소녀와 21살 재벌가 자제가 불 같은 열에 끝에 집안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식을 올린다. 그러나 평생 함께하자던 약속은 서로에게 상처만 남기고 6개월 만에 결혼생활은 끝이 난다. 그리고 7년 후 이들은 제주도에서 운명 같은 재회를 한다. SBS의 새 월화드라마 '파라다이스 목장'은 철부지 이혼남녀가 7년 후 다시 만나 계약 동거에 들어가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다. 그룹 동방산기 회장장민(심창민)과 이연희가 주연을 맡은 이 작품은 한국 드라마로는 드물게 16편 전편이 사전제작됐고 2009년 12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호주와 제주도를 오가며 촬영됐다.

18일 오후 목동 SBS사옥에서 열린 제작발표회에서 김철규 PD는 "창민 씨도 연기에 처음 도전하고 연희씨도 새로운 연기를 선보이기 때문에 초반에는 낮은 부분이 눈에 띄었지만 회가 진행될수록 자연스러워졌다"며 "결론적으로 신나고 유쾌한 드라마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연기자로 데뷔하는 심창민은 재벌 3세 한동주 역을 맡았다. 한동주는 출중한 외모에 걸음로는 차갑지만 알고 보면 따뜻한 내면의 소용자로 유산 상속을 조건으로 리조트를 재개발하기 위해 내려간 제주도에선 전처 다지(이연희)를 만나게 된다. 이연희가 연기하는 이다지는 발랄하고 명랑한 수의사로 이혼의 아픔을



받고 자신의 집이자 직장인 파라다이스 목장을 지키기 위해 전남편 동주와 계약동거에 들어간다. 그는 동주와 함께 살면서 역시 리조트 개발자 제주도로 온 서윤호(주상욱)를 만나 알콩달콩 사랑을 키워간다. '자이언트'에 출연했던 주상욱이 다지에게 빠지는 자수성가형 경영인 서윤호로 출연한다. 서윤호는 사업에서는 냉철하지만 사랑에서만큼은 따뜻한 캐릭터로 다지처럼 옛 사랑의 아픔을 간직하고 있다. 주상욱은 "리조트 개발차 온 제주도에서 다지를 만나 새로운 사랑을 찾아 가는 역할"이라며 "사전제작이라 신경써서 재미있게 찍었다. 어떤 드라마에서도 보지 못한 예쁜 그림이 나올

것"이라고 자신했다. 배우 유하나가 윤호의 옛 애인이자 동주와 새로운 사랑을 시작하는 재벌 2세 박진영을 연기한다. 유 하나는 "너무 하고 싶었던 역할"이라며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인테리어나 디자이너를 하면서 일과 사랑을 모두 열심히 하는 멋진 역할을 맡았다"고 소개했다. 범아시안적인 인기를 자랑하는 그를 동방산기의 인기를 반영하듯 이날 제작발표회에는 국내뿐 아니라 일본, 중국 등 아시아 각국에서 온 취재진들로 성황을 이뤘다. '파라다이스 목장'은 '괜찮아 아빠 딸' 후속으로 오는 24일부터 매주 월, 화요일 밤 8시50분 방송된다. <연습뉴스>

제7회 시구정장배 배아픈 한방 최강부 8강전 4보(54~77) 백 심재욱 6단 흑 박제훈 5단. Includes a Go board diagram with numbered stones and commentary on the game progress.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월 19일(음 12월 16일 甲戌). Daily fortune teller section for January 19th, featuring zodiac signs and their corresponding运势.

Table listing EBS and EBS플러스1/2 programs. Columns include time, program name, and channel details.

Right now if you can 가능하면 지금이요. Includes English and Korean text for a lesson on the Korean phrase '가능하면 지금이요'.

八零后 bālíng hòu 중국 빠링후 세대. Article discussing the generation born between 1980 and 1989.

한자 이야기 覆車之戒(복차지계) 다시 복, 수레 차, 갈 지, 경계할 계. Article about the idiom '覆車之戒' and its significance.